

Knowledge and Information- Network era

지식정보-네트워크 시대,

The core of design innovation through creative convergence is 'Human'

창조적 융합을 통한 디자인혁신의 핵심은 '사람'이다

By passing though industrialization to information era, we are living in the world of

탈 산업화 시대를 거쳐 정보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엄청난 양의 지식정보와 이들 간의

huge amount of information and complex network. In this network era which attaches

복잡하고 긴밀한 네트워크로 얽혀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러한 '관계성'을 중시하는 네트워크

importance to 'relation', 'convergence' is an inevitable paradigm. Together, designs that

시대에 '융합'은 필연적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미래에 예견되는 가치 생산 시스템과

cover systems and processes of future value production are highlighted in core aspects

과정, 문화 등을 포괄하는 디자인은 창의적인 사고와 혁신의 핵심분야로 부각되고 있다.

of creative thinking and innovation.**Design continues to expand its fields and design and those areas are related to each other.**

디자인은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으며, 전방위적으로 그들 영역과 관계하고 있다.

For example, design is homogenized by mega trend like sustainability. On the other hand,

한 예로 지속가능성(sustainable)과 같은 매가 트렌드(mega trend)에 의한 동질화와, 반면에

we could recognize co-existence of many design languages which is resulted in accom-

다양한 디자인 요구를 수용하여 세분화된 수많은 디자인 언어가 공존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modation of various design requirements. Also, technology makes it possible to make our

있다. 여기에 기술은 인간의 상상을 현실화 하는데 그 한계를 상실하고 있을 정도로 적지 않은

imagination realistic and gives us impressive experiences. In these changes in the design

감동과 함께 놀라운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이러한 디자인 환경의 변화에 있어, '지식과

environment, 'knowledge and information' is resources of creation, 'convergence' is an

정보'는 창조의 재료(resources)이며, '융합'은 혁신의 과정(innovative process)이며, 디자인은

innovative process and 'design' is a great tool. And we, 'humans', are the subject of the

훌륭한 도구(tool)이다. 그리고 이것들의 창조·융합 행위의 주체는 바로 '사람', 즉 우리들이다.

creation and convergence of all these components.**I would like to emphasize that the core of the design discourse which relies in changes of the**

창조와 혁신을 위한 '융합'에 주목하는 지금의 가치체계 변화에 따른 디자인 담론의 핵심은 바로

value system for focusing on creative and innovative 'convergence' exists in 'relation' of multiple

여러 주체와 주체 간의 '관계성'에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 그 중 '사람'은 창조적 융합의 주체인

principles. 'Humans' are the subject of the creative convergence and at the same time, have a core

동시에 '창조적 사고'라는 핵심 역량을 갖고 있다. 그들 간의 관계 형성 자체가 '융합'의 형태이며,

competency which is 'creative thinking'. Building a relationship between these component forms

디자인 가치 창출의 티핑포인트(tipping point)가 된다.

'convergence' and it becomes the tipping point of creation of design values.**Problem is, there needs to be a better design environment for 'creative individuals' to manifest their**

문제는 '창조적 개인'이 창조적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디자인 환경과, 그들에게는 다양한

abilities. Also, we need to be flexible on the acceptance of various contexts and reinterpreted tradi-

컨텍스트를 수용하려는 개방성과 기존관념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유연성이 수반되어야

tional notions. Creation of the design policy through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based network

한다는 것이다. 소위 '창조계층(Florida, 2002)'을 육성하고 재능 있는 사람들 간 지식정보

between talented people like so-called 'creative hierarchy (Florida, 2002)' is needed. We need to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한 창조활동의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내는 디자인 정책이 필요하다.

accommodate diversity of creation hierarchy and allow openness to knowledge and information to

창조계층 간의 다양성을 수용하고 지식과 정보의 개방성을 부여하여 끊임없는 창조-융합

have continuous creation and convergence. Typically, the 'creative industries (Caves, 2004)' gains

활동을 장려하고 실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창조 산업(Caves, 2004)'은 타 분야와 연계될 때

ripple effects when connected with variety of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structures. Thus, the

파급효과가 크며, 사회, 경제, 문화 구조가 다양할수록 연계성이 높아지는 특성을 감안할 때,

network based convergence on knowledge and information between the creative individuals, will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창조적 개인 간의 지식정보의 융합은, 디자인과 예술, 이념과 문화, 제도와

enable the production of various design values which includes design and art, ideas and culture,

시스템, 경제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디자인 가치 생산을 가능케 할 것이다.

and system and economy.**The future of design for creative convergence strongly depends on individual designers and users,**

창조적 융합을 위한 디자인의 미래는 결국, 디자이너 개인과 사용자, 그들의 적극적 참여와

their active participation and flexible network of relationship through sharing of knowledge and

지식정보의 공유, 그리고 그 들간의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유연한 관계 형성의 수준에 달려

information.

있다고 할 수 있겠다.